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김은호 편집국장: 조선근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교회로

김성관 목사 위임식예배 성황리에 마쳐

이 미 광고된 바와 같이 지난 8월 21일(목) 저녁 7시 30분에 우리 교회 본당에서 김성관 목사 위임식예배가 성황리에 마쳐졌다. 노회 및 교계의 지도자들과 관계자들, 약 3천여명의 교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위임식예배에서는 설교에서부터 답사에 이르기까지 '예수를 전부로 삼고 예수를 위하여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핵심적으로 강조되었다. 그리고 온 교우들이 이에 아멘으로 응답하였다.

조원일 목사는 빌립보서 2장 1-11절을 중심으로 한 설교에서 충현교회에는 바울처럼 주님을 전부로 삼는 지도자 및 디모데처럼 지혜롭고 말씀에 사로잡힌 온유한 동역자, 에바브로디도처럼 죽도록 충성을 다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축복의 설교로 감동을 주었다. 그리고 위임목사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을 전한 예종탁 목사는 말씀에 전력을 다하고 기도 에 힘쓰며, 온 교우들을 사랑으로 품으면서 장거리 경주자와 같이 끝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위임목사가 될 것을 권면하며 축복하였다. 이어서 최훈 목사, 신세원 목사, 장정탁 목사, 사무엘

로간 목사 등이 전하는 사랑의 권면과 축사의 말씀이 있었다.

답사를 통해서 김성관 위임목사는 생명을 걸고 예수만 전하는 목회를 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충현교회가 예수만 높이고 주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교회가 될 것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목사·장로 중창단이 화합하여 아름다운 화음으로 찬양한 것처럼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는 목사와 장로가 하나로 연합하여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자라가게 될 것을 믿는다는 말로 답사를 정리하였다.

충현교회 온 성도들은 김성관 위임목

8월 31일(주일)

97년도 제3차 성찬식

교회는 1997년 세번째 성찬식을 8월 31일(다음 주일) 1, 2, 3, 4, 5부예배 시간에 거행한다.

이에 모든 성도는 기도로 준비하며 감사와 회개와 헌신의 마음으로 참여하여 의미있는 성찬식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사가 번치않는 깨끗한 신앙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초지일관 하나님 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또 매우 바쁜 일정들 속에서도 건강을 지키면서 힘있게 사역해 가도록 하기

위해, 더욱이 성도들 자신이 예수께 모든 삶을 맡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주역들이 되기 위해 더욱 힘써 말씀을 가까이하며 기도해야 할 것이다.

'97 하반기 교육훈련원 9월 7일 개강

수강 자격은 교인이면 누구나, 타 교회 교인도 가능
교사·찬양대원은 반드시 수강하여 수료증 취득토록

매 년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전반기·후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는 교육훈련원의 97년도 하반기 강좌가 9월 7일(주일) 찬양예배시 개강예배를 드림으로써 일제히 개강되어 12월 중순까지 진행된다.

특히 전후반기 강좌 중에는 교회학교 교사 및 찬양대원 양성을 위한 강좌가 있어 교사나 대원 중 아직 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과정을 마쳐야 하고 또한 교회학교 교사나 찬양대원으로 봉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이 과정을 마쳐야 한다.

또한 선교연구원은 선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선교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를 원하는 사람, 선교 헌신자들을 대상으로 제7기생들을 모집하여 매주 토요일 강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강사는 대부분 외부 강사로 구성된다.

선교연구원 강의를 수강하기 원하는 성도들은 선교위원회(선교관 406호)에 접수하면 되는데 등록비는 2만원이다(불학기 등록자는 면제). 그밖의 강좌는 9월 7일(주일)까지 교육국(교육관 103호)에 접수를 하면 된다. 실시 과정별 강좌 계획은 다음과 같다.

(1) 주간성경공부

호세아서(화, 오전 10시, 김동석 목사)
크로스웨이1(화, 밤 7시 30분, 정형준 목사)
크로스웨이1(수, 오후 1시 30분, 한근수 목사)
크로스웨이2(수, 오후 1시 30분, 이승림 목사)
크로스웨이3(수, 오후 1시 30분, 윤삼중 목사)
크로스웨이4(수, 오후 1시 30분, 김희수 목사)
요한일서(목, 오전 10시, 이국병 목사)
빌립보서(목, 밤 7시 30분, 김제철 목사)

(2) 제7기 양육훈련 과정

초급반 A(수, 오전 10시, 한근수 목사)
초급반 B(수, 오전 10시, 김동석 목사)
중급반 A(수, 밤 8시 30분, 김희수 목사)
중급반 B(토, 오전 10시 30분, 윤삼중 목사)

(3) 제47기 교사양성부

· 교육시간: 매주일 15:00~16:50

각 교회학교 소개(이종대 목사)
충현교회 교회학교의 역사(이종대 목사)
구역개론(이홍성 목사)
선약개론(김필수 목사)
기본교리학(윤삼중 목사)
세계교회사(김동석 목사)
한국교회사(김제철 목사)
전도와 선교(이승림 목사)
예배론(현상민 목사)
기독교 교육의 원리와 실제(박경한 목사)
기독교 상담학(김희수 목사)
교회학교 교사론(성봉환 목사)
종교지도법(한근수 목사)
교회학교 설교

(4) 제17기 찬양대원양성부

· 교육시간: 매주일 15:00~16:50
교회 일꾼의 자격(현상민 목사)
영적 예배와 찬양(이국병 목사)
합창호흡 및 발성(김희주 선생)
초급시창(이진우 집사)
중급시창(장가범 집사)
고급시창(조진욱 집사)
합창 워크샵(김철륜 집사)
찬양대원의 영성(김제철 목사)
은사와 봉사(김필수 목사)
성경에 나타난 찬양(정형준 목사)
찬양대원의 자제(박경한 목사)

(5) 제7기 선교연구원

· 교육시간: 매주 토요일 17:00~19:50
초기 한국교회의 해외선교역사(김제철 선교사)
이슬람 여성관(전재욱 교수)
이슬람 여권에 공통체 사색(홍준관 선교사)
아시아 종교와 기독교 선교(전호진 목사)
정보 활용과 정답 사례 보고(이영제 교수)
이슬람의 교리와 선교 접근(공일주 교수)
다문화권 선교(이요한 목사)
선교 인물 고찰(심장섭 목사)
매전도종족 입양 전략(한정국 선교사)
외국인 근로자 사역의 실제와 전략(김병범 목사)
전통적인 선교(양철호 목사)
외국인 근로자 국내 선교의 필요성(정정호 선교사)

대학·청년을 위한 5부예배 시작

오늘부터 매주 오후 3시에 본당에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대학부, 청년부에서 담당

교회는 오늘(8월 24일)부터 젊은이들을 위한 5부예배를 드리기로 하여 바로 오늘 오후 3시에 5부 첫예배를 시작한다.

5부예배는 김성관 위임목사가 교회 내 젊은이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통하여 서로 만나며 교제하여 젊은이들을 키우고자 하는 목회적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5부예배의 설교는 김성관 위임목사가 담당하며, 사회와 기도는 대학·청년부 교역자와 부장 장로가, 찬양은 당분간 교동부찬양대가 담당하게 되고 준비가 되는 대로 청년부와 대학부가 번갈아가며 할 예정이다. 안내 및 헌금위원도 대학·청년부에서 맡게 된다.

5부예배는 현재 교회학교 대학·청년부 회원만이 아니고 교회 내의 수 천명의 젊은이들이 모두 모여 신앙적 훈련과 역동성 넘치는 신앙생활, 전도, 선교적 사명 등을 감당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하며 시작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 내의 젊은이들이 가능하면 5부예배에 참석하여 같은 젊은이들과 호흡하고 교제하며, 선한 관심을 공유하고, 위임목사와 더불어 이러한 비전을 함께 나누으로써 충현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미래 지도자들로 성실히 준비되어 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한편 김성관 위임목사는 지난 8월 19일(화)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대학부, 청년부 임원 60여명과 함께 대화의 시간을 가지 솔직하고 진지한 분위기 아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시간에는 5부예배 신설에 따른 위임목사의 의지, 5부예배 신설에 따른 대학·청년부의 문제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등과 함께 부분적으로 위임목사의 목회적 꿈이 피력되기도 했다. 이 대화의 시간은 피차간에 이해와 관심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됐다. 이처럼 위임목사가 젊은이들과 장시간 마음을 열고 대화한 일은 이전엔 없던 일이었다.

이 젊은이예배가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힘있게 성장해갈 수 있도록 성도들의 많은 기도가 있어야 하겠다.

● 김창인 목사의 이사야서 강해 ●

무익하게 된 포도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1)

(이사야 5:3-4, 7-12)

1. 기회를 잃은 변론

유다 족속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으므로 좋은 포도를 맺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었으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할 수 없다' 하시면서 심판할 것을 선언하십니다.

3절의 '판단하라'는 말씀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심판을 받기 전에 실컷 변론을 해 보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족속이 하나님께 대하여 판단하며 항의할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변론할 기회를 이미 잃은 것입니다.

오늘날 서울에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매를 맞다고 해서 항의할 것이나 판단할 것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2. 심판을 받아야 할 들포도

(1) 두 가지로 설명한 들포도열매

7절 말씀, 곧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박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끄러움이요"라는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라는 2절 말씀의 해석입니다.

① 들포도란 열매는 포박입니다.

포박은 윗사람들이 범하기 잘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유다의 세력 잡은 사람들에게 공평을 바랐더니 포박만 행하였습시다.

'우리가 무엇에 공평해야 합니까? 첫째로, 물질 취급에 공평해야 합니다. 돈 거래를 할 때에 공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수고한 만큼 대가를 줄 줄 알아야 합니다. 수고는 3천원 어치를 시키고 보수는 5백만원 주었다면 포박입니다. 또 일은 5백원 어치 하고 대가는 3만원을 달라고 하면 이것도 공평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을 주고 받는 일에 공평해야 합니다.

둘째로, 사건 처리에 공평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인정에 치우치지 말고, 세력에 끌리지 말고, 돈에 끌리지 말고, 공평해야 합니다.

② 들포도열매는 반역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족속에게 순종을 원하셨습시다. 그러나 도리어 반역으로 응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가슴 속에 양심을 주신 것은 순종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세밀하신 분이어서 세상에 태어난 사람치고 양심을 받지 않은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 양심을 주셨습니까? 혼자 있을 때에 못된 짓을 못하도록 사람들의 가슴 속에 양심을 주셨습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의롭게 살도록 하기

위해 각자에게 양심을 주셨습시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세우시고 때를 따라 진리로 우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할 생각은 하지 않고 꼬투리를 잡고는 해보자고 대드는 데, 이것이 반역이란 들포도열매입니다. 진리에 순종하지 않으니 반역뿐이요 이것이 들포도입니다.

(2) 일곱 가지로 설명하는 들포도열매

① 지나친 욕심(탐심)의 죄입니다.

들포도는 욕심에 눈이 어두운 극단의 개인주의의 죄악입니다.

당시 유다 족속들은 얼마나 욕심이 많았던지, 집을 하나를 사고 열 채, 백 채를 사고 모든 집을 제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오늘도 사람들을 보면 땅을 천 평을 사고 만 평을 사고 십만 평, 백만 평을 사고 서울 주변의 모든 땅을 다 제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에는 '돈을 많이 모아서 집을 여러 채 짓고, 땅을 많이 사는 것이 무슨 죄가 되겠나? 이리실지 모르겠습시다. 그러나 이 말씀의 뜻은 수단이나 방법을 가리지 않고 치열한 경쟁으로 약자의 등가죽을 벗기고 나라를 망치면서까지 돈을 긁어 모아 집 위에 집을 더 짓고 땅 위에 땅을 더 싣는 말입니다.

이 내용을 야모스 2장 6절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는 돈 얼마에 의인을 죽인다는 말입니다. '신 한 결례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는 선물로 구두표 하나를 받고 가난한 자 한 사람쯤 죽이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여 돈을 모았습시다. 하나님께 욕이 되는 것도 관계치 않고 교회가 손해를 당하는 것도 개의치 않고 열 사람이 울고 백 사람이 가슴을 치다가 죽어도 '못난 것들'이라고 비웃으면서 돈을 모았습시다. 높은 권세를 쥐고 있는 동안 이전에는 남에게 달라고 할 수 없던 것들을 빼앗아 가겠다는 말입니다. 남이야 울든지 가슴을 치든지 나라야 망하든지 석하든지, 자기 집이 열 채 스무 채가 되면 그저 좋다고 춤을 춥시다. 줄 것을 주지 않고 달라고 하지도 못할 것을 억지로 빼앗아서 쌓은 재산입니다. 이런 탐심의 죄를 위해서 몇 억대를 가진 사람이 돈을 더 모으려고 가짜 약을 만들어 팔고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는 약자를 죽이면서까지 돈을 쌓았습시다. 이처럼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양심의 가책조차 없이 죄를 범하면서 돈을 모았으니 극단의 개인주의입니다.

이렇게 하면 잘 살고 편안하게 살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극단의 개인주의자를 편안히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정녕히 심판해 버리시겠다는 무서운 선언을 하십니다. '정녕히'는 재판장이 마지막 판결을 선언하는 의미를

열락(悅樂)에 취해 버린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가만히 두어도 망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까지 하시니 그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6절을 보면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쾌락을 좋아하는 것이 들포도입니다.



가진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판결이 어떠하였습니까?

첫째로, 허다한 가옥에 살 사람이 없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집을 아무리 크게 짓고 아름답게 꾸며어도 그 안에 살 사람이 없어지겠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할 지도 모른다'가 아니고 '정녕히'라고 선언하십니다. "정녕히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사 5:9). 크고 아름다운 집에 사는 사람들이 없어져 집이 비게 되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므로 식구가 하나 하나 세상을 떠난 결과 집이 비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점령하게 되는 과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별로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력과 돈이 있어서 거들먹거리며 잘 살던 사람들은 대개 체포되어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크고 아름다운 집에 살 사람이 없어지게 되겠다는 재판장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둘째로, 포도원에 흉년이 들겠다고 하였습니다.

'열흘같이 포도원'이란 3만 평쯤 되는 포도원을 말합니다. 포도원이 천 평만 되어도 수입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3만 평 정도면 대단히 큰 포도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바트의 포도를 따겠다고 합니다. 한 바트는 우리 말로는 40달이니 겨우 여덟 가마를 따겠다는 말입니다. 3만 평의 포도원에서 포도 여덟 가마를 따서야 어떻게 타산이 맞겠습니까? 주인이 망하는 것입니다.

또 '한 호멜지기'는 종자(씨앗) 400말, 즉 80가마니 뿌리는 땅입니다. 그런데 넓은 땅에서 가을에 추수를 하여 보니까 뿌린 종자의 10분의 1인 40말밖에는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농사란 뿌린 종자보다 60배 100배를 거두어야 하는데, 종자의 10분의 1밖에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서운 흉년을 보내시겠다는 저주의 말씀입니다.

욕심을 품고 땅을 자주 사고 그 위에 집을 짓고 또 지었지만 사람이 죽어 버리니 그 집이 비게 되고, 포도원을 만들고 만들어서 3만 평으로 넓혔으나 거기서 겨우 여덟 가마의 열매를 따서 본전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상태이니 흥작이 되어 망하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② 들포도열매는 방탕한 죄입니다.

이 말씀은 때를 가리지 않고 먹고 마시고 춤을 춘다는 말입니다.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나 술을 조금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이른 아침부터 마시웁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마시는가 하면 저녁 때까지도 아니고 밤이 깊도록 마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락(悅樂)에 취해 버린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배워야 할 때에 공부하지 않고 놀러만 다니고 일을 해야 할 때에 일하지 않고 술을 마시고 춤을 추었으니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망하겠는데, 하나님이 심판까지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편없이 망할 것입니다. 일해야 할 때에 일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춤을 추었으니 별 수 없이 도적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이 일할 때 일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춤을 추었으니 유혹비를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도적질을 해야지요.

디모데전서 5장 6절을 보면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하였는데 이처럼 쾌락을 좋아하는 것이 들포도입니다.

지금 이 나라 국민이 '먹자, 놀자' 할 때가 아닙니다. 때를 모르고 쾌락을 좇아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는 사람들은 들포도를 맺은 사람이라는 선언을 받고 망할 것입니다.

유다 족속은 술을 먹고 마시면서 온갖 악기를 모두 동원했습니다. 수금, 비파, 소고 등 별별 악기들을 다 준비했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필경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

Next Sunday's Message By Rev. Kim, Sung Kwan

김성관 목사의 다음 주일 설교

THE TEMPORAL AND THE ETERNAL

(2 Corinthians 5:1-10)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

(고후 5:1-10)

Today's message is a real eye opener! It totally contradicts the current Christian movement with its strong emphasis on the temporal things of this world. Anyone with understanding knows from the newspapers, radio, television, and global computer communications that people all over the world seek to find answers to their problems through worldly means. Even Christians keep the eternal at a distance in favor of God's material blessings. The huge outcome of this mistake has produced a way of thinking and living far from the truth.

What is the truth? The truth is that from the day we are born or more specifically from the moment we are conceived, our outer self begins to die. As Christians, our inner self is renewed daily through our faith in Christ by the Holy Spirit. The sufferings and hardships of our Christian life are 'light afflictions' that produce eternal glory (2 Cor. 4:17). They are literally weightless in comparison to eternal measures. True Christians think and live for the things which are not seen, not for the things which are seen. In other words, we live for the eternal not the temporal.

Temporal things are worldly things - things that are made to last for a specified period of time. Our human bodies, homes and businesses, mountains and trees, political governments, etc... are all temporal things. Eternal things are holy - they last forever. Heaven, our resurrected bodies, the truth, the Word of God, God the Father, Son, and Spirit are all eternal. Everything associated with the eternal relates directly to God and is sightless to our human eyes. That's right - our eyes cannot see eternal things. To live for the eternal requires faith in Jesus Christ. Faith in Christ is the only means of attaining the righteousness of God and His eternal blessings. To know Christ is to know the eternal!

Now comes an important question! At this very moment, are you groaning to be with God in heaven? The question shouldn't focus on whether we look forward to heaven but rather if our hearts express a deep pain right now to be present with God. If our answer is yes, then the Bible affirms that we know Christ. If our answer is no, then the Bible also affirms that we don't know Christ and our faith needs to be strengthened by the Word of God. The Bible really challenges us on this issue. Paul, a true Christian and apostle of Jesus Christ, reveals the clear distinction between the temporal and the eternal in his second letter to the Corinthians. He gives us the whole picture of a true Christian heart.

He begins, "For we know that if the earthly tent which is our house is torn down, we have a building from God, a house not made with hands, eternal in the heavens" (vs. 1). Wow! Paul really knows how to express things! He describes our earthly bodies as tents - temporary shelters. As Christians, when our human bodies die, we know that God has permanent bodies for us in heaven. Permanent bodies are eternal bodies. They are the most perfect, beautiful, incredible and totally awesome bodies we can have. Our current bodies are nothing compared to our heavenly bodies. Our current earthly dwelling is also nothing compared to our heavenly dwelling. Heaven is the greatest place that exists. Our human bodies and this world are cursed by sin. Heaven and our heavenly bodies have no sin. They are holy, pure, and eternally glorious.

The Word of God tells us, "For indeed in this house we groan, longing to be clothed with our dwelling from heaven, inasmuch as we, having put it on, will not be found naked" (vss. 2-3). Christians groan for their eternal resurrection body. Our earthly bodies and life bring many burdens. Our eternal bodies and life have no burdens. True Christians really yearn to be clothed eternally. In Christ we will not be naked before God because everyone in Christ is clothed with Christ (Gal. 3:27). In Christ our clothing takes away mortality and replaces it with eternal life (vs. 4).



오늘의 메시지는 오늘날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들에 강조점을 두는 현재의 기독교 운동과는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인식이 있는 자라면 세상의 사람들이 그들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세속적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을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그리고 세계적인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적인 복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릇된 사고는 진리와는 거리가 먼 사고와 생활양식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곧 우리가 태어난 날, 곧 더욱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가 잉태되던 순간부터 우리의 겉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에 의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생과 역경들은 '환난의 경한 것'으로서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고후 4:17). 영원한 기준

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것들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것들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생각하며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고 일시적인 것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것들은 세속적인 것들이요 정해진 기간만 지속되도록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우리들의 몸, 가정, 비즈니스, 산, 나무, 정부 등은 모두 다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들은 거룩하며 영원히 존재합니다. 천국, 우리의 부활한 몸, 진리, 하나님의 말씀,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님은 모두 다 영원합니다. 영원과 연관된 것들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데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합니다. 우리의 눈은 영원한 것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의와 그의 영원한 복을 받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영원을 아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십니까? 이 질문의 초점은 우리가 천국에 가고자 하는 소망이 있느냐 하는 데에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고자 하여 깊은 아픔을 느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예' 라면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고 확인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대답이 '아니오' 라면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 확고해져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심각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통하여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 사이의 명확한 차이점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1절) 라고 본문을 시작합니다. 그는 땅에 있는 우리의 몸을 일시적인 처소가 되는 장막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의 몸이 죽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영구적인 몸을 하늘에 예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구적인 몸은 영원한 몸입니다. 그 몸은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우며,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가장 놀랍고 완전한 경이로운 몸인 것입니다. 우리 현재의 몸은 하늘의 몸에 비교해 볼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현재 우리의 거처 또한 우리가 거할 하늘의 처소에 비교해 볼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국은 존재하는 가장 위대한 장소입니다. 우리의 육적 몸과 이 세상은 죄에 의하여 저주를 받았습니 다. 천국과 천국의 몸은 죄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 몸은 거룩하고, 순결하며, 또한 영원토록 영화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2-3절)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영원히 부활한 몸을 덧입기 위하여 탄식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몸과 삶은 부당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실로 영원한 것으로 덧입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별거벗은 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갈 3:27).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옷은 죽음을 물리치고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대체시킵니다(4절).

이것은 실로 놀라운 말씀이어서 우리가 말씀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

This is some really powerful stuff. It's important that we grasp the very nature of its meaning. Our human bodies are the temple of the Lord. The Word of God became flesh so that we could receive this grace upon grace (John 1:14 & 16). Without Christ our inner self is naked, sinful and unprotected. Just as we wear clothes now to cover our outer body for protection, faith in Christ covers our inner self. Without clothes to protect our body, we become subject to all the earthly elements (wind, snow, rain, heat, cold, and etc.). Without Christ in our heart, we become subject to all the evil elements of sin (Satan, his demons, worldly desires, deceit, lies, and etc.). In both situations, the bottom line is death. In the latter situation, death becomes an eternal punishment.

Jesus said he would rebuild the temple of Jerusalem, which took the Israelites over forty-six years to build, in three days (Mat. 26:61 & John 2:20). He was referring to His body, not the temple building itself. His resurrection on the third day following His death provides those who believe in Him with eternal clothing. This supernatural clothing gives us spiritual bodies that are eternal. Christians will not be disembodied but fully embodied! Jesus redeemed us through His death. Our mortal bodies will be transformed into eternal bodies because of God's amazing grace!

As Christians, we die to ourselves in Christ. God's grace works through our faith in Christ. Our will and way is replaced with His will and way. We seek to please, worship, and praise Him because we know Him. We know how great, how good, how almighty, and how sovereign God is. We know that God is indeed God!

Who worked out this plan of life? "Now He who prepared us for this very purpose is God, who gave to us the Spirit as a pledge" (vs. 5). God designed our life just this way. The proof is found in the Holy Spirit, which is God's guarantee, His deposit for our future. For we know that while we are in our earthly bodies we are absent from the Lord (vs. 6). How do we know this - "for we walk by faith, not by sight" (vs. 7). Though Christ is not visibly present today, we live by faith in the reality of His presence with us and the certainty of all the promises concerning our future.

Just as Abraham lived by faith, we as his sons should live by the same faith (Heb. 11:9; Gal. 3:7-9). Abraham's faith led him on incredible journeys. He wasn't able to see the blessings ahead but his heart knew God and stayed focused on the eternal, not the temporal. Our faith also needs to reflect our heart, "we are of good courage, I say, and prefer rather to be absent from the body and to be at home with the Lord" (vs. 8). Yes! Here is our heart! All Christians prefer to be home with the Lord instead of present with their temporary bodies! No matter if we are here or there, our desire is to please God (vs. 9).

Keep in mind the final moment when every human being must face, "For we must all appear before the judgement seat of Christ, so that each one may be recompensed for his deeds in the body, according to what he has done, whether good or bad" (vs. 10). The necessity to be clothed in Christ is paramount. Only God is sinless. Everyone else has sin and the consequences of sin is death. In order for us to stand with confidence before the judgement seat, in order to be free of sin, we must have faith in Jesus. He alone forgives all our sins.

It's only when we live by faith that we can envision the Heavenly City and our Heavenly Home in our Heavenly bodies. When we live by sight everything passes away; it's all temporary and decaying. The Scriptures clearly tell us to stop looking to the world and start living for heaven. Knowing that our eternal home is being with the Lord in heaven and that our present living conditions are just temporary, doesn't this make your heart groan for the day when we will receive our permanent dwelling and body from God? Our aim to please Him and our goal to be with Him can be accomplished in Christ. Faith, my Christian friends, in the unseen workings of God is the only key to leaving the temporal and entering the eternal.

To live for the eternal is to groan to be with God. It means recognizing that this world and everything in it is only temporary; it holds no real value in and of itself. There are no real treasures here on earth. Our time here is meant to reconcile others to God for His glory and pleasure. Our treasures are awaiting us in heaven. Let's not be fooled into thinking that material blessings, success, and fame have any value. They don't! They really don't!!!

Let's refrain from giving any time to these time wasters! They all lead down the road to death. They are temporary pleasures that detour our inner self towards eternal fire. Let's live our life for the eternal by spending time on things that will count for something, that have weight, that will make God happy. To know what those things are, we must listen to His voice. We must pray, meditate and study His Word in order to hear the Holy Spirit's directions. We need to learn and discipline ourselves to always listen, follow and obey His will and way, so that our life will be eternal.

합니다. 우리의 육적 몸은 주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 위에 은혜를 받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요한 1:14, 16). 그리스도가 없는 우리의 속사람은 벌거벗은 것이요, 죄되며 보호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옷을 입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의 속사람에게는 옷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옷이 없을 때에, 우리는 바람, 눈, 비, 열, 추위 등의 땅의 요소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사탄, 그의 귀신들, 세속적 욕망, 거짓, 거짓말 등의 죄의 모든 요소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됩니다. 어떤 경우든지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 죽음은 영원한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십 육년 이상 걸려서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사흘만에 재건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마 26:61, 요 2:20) 이는 성전 건물에 대하여 말한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의 몸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신지 사흘만에 부활하신 것은 주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옷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초자연적인 옷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적 몸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몸을 벗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덧입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썩을 몸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때문에 영원한 몸으로 변화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의지와 방법은 주님의 의지와 방법으로 대체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기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며, 얼마나 선하시며, 얼마나 전능하시며, 얼마나 주권의 하나님이신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로 주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 이러한 삶의 계획을 이루셨습니까?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5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계획하셨습니다. 그 증거는 성령 안에서 발견이 되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보증이시고, 우리의 미래를 위한 증거이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에 거할 때에는 우리가 주와 따로 거한다고 하였습니까(6절).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7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도록 계시지는 않으시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확신하며,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관한 모든 약속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에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던 것과 같이, 주의 자녀들이 된 우리들도 동일한 믿음에 의하여 살아야 할 것입니다(히 11:9; 갈 3:7-9).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로 하여금 놀라운 인생을 살도록 하였습니다. 그는 앞에 있는 축복을 눈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반영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8절).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일시적인 몸에서 거하기보다는 주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우리의 소망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9절).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이 직면해야 하는 마지막 순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10절). 그리스도로 덧입힘을 입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 없는 분이십니다. 다른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고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우리가 죄 없는 자로서 담대하게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늘의 도성, 우리의 하늘의 몸 안에서 우리의 하늘의 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에 의하여 살 때, 모든 것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나라를 위하여 살라고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집은 천국에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며 우리의 현재의 삶의 형편은 단지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 때에, 여러분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구한 거처와 몸을 받게 될 그날을 간절히 소원하지 않겠습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며 주님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의 소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우리들로 하여금 일시적인 것들을 떠나서 영원한 것으로 들어가게끔 하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사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을 열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단지 일시적이며 그 자체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진정한 보물은 없습니다. 우리의 담은 생애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뻐하심을 위하여 하나님과 화목 하는 자들이 되도록 사람들을 돕는 데 쓰여져야 합니다. 우리의 보화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나라에 쌓여 있습니다. 몰랐던 복, 성공, 그리고 명성이 가치 있는 것이라는 생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더 이상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일시적인 즐거움들로서 우리의 속사람을 영원한 심판을 향하여 돌아가게끔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무언가 남고, 무게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영원한 것을 위하여 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셨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무엇인가 알기 위하여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들을 수 있기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배우며 우리 자신을 훈련하여 항상 주님의 뜻을 듣고, 따르며, 순종하는 가운데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셨습니다.

◆ 선교수련회를 다녀와서 ◆

망설임이 변화되어 확신으로

조 다 룡
(고등부)

주님께서 주신 그 첫번째는 농촌봉사활동 시간 안에 있었던 소중한 만남이었다. 고된 농사일로 깊게 패인 주름, 까맣게

벌들이 반짝이고 어둠조차 아름다운 밤이 되었을 때 그만큼이나 아름다운 모습이 여기에도 있었다.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들 속에, 주님께서 행하셨던 것과 같이 한 사람의 발을 직접 씻어 주시며 기도해 주시는 선생님 속에 주님이 계셨다. 환하게 떠오르던 불꽃 속에 보이던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얼굴을 나는 아마 결코 잊지 못하리라. 그렇게 늦은 밤까지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계속되었다.

마지막 날 돌아오는 길에 제천역 근처와 휴게소에서 두 번의 노방 전

“나는 할머니들께서 만들어 주신 미숫가루와 비빔냉면에 배불렀고 그분들의 인정에 배불렀다. ... 주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셨다.”

그 올린 얼굴이지만 정말 편한 미소를 지으시는 할머니들과의 만남이 그것이었다. 농작물의 뿌리를 덮어 놓은 비닐을 거두는 일을 그분들을 도와 함께 했다. 일이 서둘러서 금방 흠투성이가 된 우리들을 할머니들께서 털어 주시고 땀을 닦아 주셨다. 또 참외를 깎아 주시고 미숫가루를 타 주시고, 손수 비빔냉면을 말아 주셨는데 나는 그것들에 배불렀고 또 그분들의 인정에 배불렀다.

두번째로는 은혜로 가득찬 축복된 밤을 주셨다. 점점 어두워지면서 별이 총총히 뜨기 시작하자 우리는 자갈이 넓게 펼쳐진 강가에 가서 캠프파이어를 시작했다. 나중에 셀 수도 없을 만큼의

도가 있었다.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한다는 것, 예상은 했지만 정말 쉽지가 않았다. 선생님들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이렇게 전도하라고 가르쳐 주지 않으셨다. 다만 입을 열면 성령께서 이끌



어 주시니 어서 가라고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전도지를 가지고 두려움이 가득한채 사람들 앞에 섰다.

하지만 내가 틀렸다. 주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이다. 나는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어떤 말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지 않았다. 다만 쉽지 않았던 것은 그들의 마음을 잡는 일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며 그냥 지나쳐갔고 더러는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며 우리에게 욕박지르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의 고개를 저으며 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슬프기도 했지만 더욱 힘이 생기기도 했다. 저들에게 주님을 전할 사람이 정말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에,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에 대한 나의 믿음에도 확신을 얻었다.

물론 평상시에도 늘 내게 좋은 것만을 주시는 주님이시지만 이번 선교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게 해 주신 주님께 정말 감사드린다. 그리고 휴가도 반납하시고 수고하신 선생님들과 선교사님, 수련회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분들 위에 주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는다.

갈까말까 많은 망설임이 있었다. 고등부 여름수련회를 다녀온 지 하루밖에 되지 않았고 몸도 별로 좋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내 마음이 아직 열리지 않은 탓이었다. 하지만 주님께선 친구를 통해서 나를 계속 부르고 계셨다.

교회에서 출발한 지 약 3시간

정도가 지나자 차는 우

리들을 각각 편성된

조대로 낚선 곳

에 떨어뜨려

놓았고, 우

리는 우리

가 가야 할

곳을 스스로

찾아야 만

했다. 우

리가 가야 할

곳 - 그곳은 말

그대로 새파란 하늘,

푸른 산, 맑은 강이 있어 이 자

연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자연을 만

드신 주님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그런 곳이었다.

그 아름다운 곳, 영월 북쌍리의 북쌍교

회로 우리는 향하고 있었다.

먼저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지방도

로를 따라 걸은 지 한 30분쯤 되었을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도 너무 빨리 응

답해 주셨다. 우리는 목사님 한 분을 만

났고 그 목사님의 차를 타고 쉽게 북쌍

교회에 도착했다. 우리 조가 1등으로 도

착한 것이다.

다음날은 아침부터 햇살이 강하게

비추고 있었다. 아침 햇살인데도 왜 그

리 강하게 내리쬘던지 피부가 따가울

정도였는데 이곳에서의 주님의 아침 인

사법인 모양이었다. 그때부터 웬지 좋

은 일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더니 정

말 그 예감대로 나는 그날 주님께로부

터 몇 가지 소중한 선물을 받았다.

* 부서 탐방 / 대학부 *

지성과 영성 겸비한 실력자 양성

각종 소그룹활동으로 봉사생활도

선교적인 비전과 실천을 통해 최근 여러 교회 대학부들로부터 깊은 관심과 주목을 받아온 우리 교회 대학부(부장 서동석 장로, 지도 한근수 목사)는 새벽 이슬 같은 젊은 대학생들을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균형잡힌 건전한 실력자로 양성하는 부서이다. 이를 위해 대학부는 양육을 위한 모임, 사역을 위한 모임, 현장을 위한 모임들로 세분화하여 양육과 사역을 동시에 이루어가고 있다.

첫번째로 소개할 모임은 양육을 위한 모임이다. 이 모임에 주된 것은 매주 일 집회가 끝난 후 성경 말씀 공부와 교제, 나눔의 시간을 갖는 GBS(Group Bible Study : 조별성경공부)다. 이 공부는 약 10명 정도의 인원수로 구성된 조에서 이루어지고 이들 조를 6개로 묶어 하나의 팀을 구성하였다. 이렇게 하여 대학부내에는 16개의 팀과 84개의 조가 있다. 조장은 1주 전, 팀장은 2주 전에 지도 목사님과 미리 공부하여 이들이 조원들이나 팀원들에게 미리 공부한 내용들을 전하고 있다. 올해 초반부에는 고린도전·후서를 공부했고 지금은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고 있다.

그리고 이외에 특별한 교육으로는 학년별 '예수 제자 훈련 과정'이 있다.

이 훈련 과정에서는 GBS시간에 다루지 못했던 주제들, 예를 들어 선교, 직업관 등에 대한 공부를 통해 기독교인의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두번째는 사역을 위한 모임이다. 이것은 9개의 부서 활동 사역과 동-하계 지인자 사역으로 나눌 수 있다.

이를 위해 고아원을 방문해 주님의 사랑과 말씀을 전하는 돌배개, 병원전도대로 환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으로 전하는 NMC, 대학부 대내외의 모든 공식 집회때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팀, 찬양을 통한 외부 전도 사역(군전도, 노방전도, 전도집회 등)을 하는 시심나(시냇가에 심은 나무) 등이 있다. 또 문서, 영상, PC통신 사역과 대학부 홍보 자료를 제작하는 홍보부, 군입대, 유학, 어학 연수, 장기 결석자 등을 관리하는 하사리(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을), 봉천5동 재개발지역의 결손 가정과 맞벌이가정의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도록 도와주는 봉공방(봉천동공부방), 선교의 여러 가지 일들을 후원하는 M&M(Mission & Me : 선교와 나), 성극을 매개로 하나님을 알리려는 새하늘과 새땅, 낙도 오지사역을 담당하는 외로운

등대가 있다.

동-하계때 지원자를 모아 실시하는 사역으로는 전남 고흥군의 연흥도를 비롯한 6-7개 섬들에서의 낙도 사역과 춘천소년원이나 군전도회가 주체를 하는 군부대 위문 집회 등이 있다. 또 각 학년의 모임에서도 농촌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세번째는 현장을 위한 모임이다. 이 모임에는 학년 모임과 풀무불, 익투스, 직장전도과가 있다. 학년 모임은 대학부 내에서의 동기들, 같은 학년의 모임으로 학년별 정기 모임과 기도회, 학년 MT, 학년제 등을 통해 각 학년 회원들의 친교와 교제를 이루어가고 있다. 풀무불은 대학 입시를 다시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기도 모임이고 익투스는 대학 전도 사역을 담당하는 학교 모임이며, 직장전도과는 대학부내 직장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에서의 삶을 보다 역동적으로 살아가도록 격려하는 모임이다.

대학부는 주중에 기도회를 많이 가진다. 매주 수요일에는 열린 기도회, 목요일에는 하사리 군 기도회, 금요일에는 세계 선교를 꿈꾸는 젊은이들의 청년교구 연합 중보 기도모임인 세뽕이 기도회, 토요일에는 삶을 위한 기도모임이 있고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는 금요 정기 철야기도회가 있다.

앞으로 대학부 회원들은

주일 11시 30분부터 제2교육관 2층에서 집회를 가진 후 각 조별로 GBS를 하고 오늘(8월 24일)부터 시작되는 5부예배에 참석하게 된다.

앞으로 총현의 대학부가 주님을 전하는 많은 사역들을 더욱 힘써 감당하고, 뿐만 아니라 각 사람에게 알맞은 교육을 통해 더욱더 올바른 신앙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의 기도의 동역이 절실하다.

(글/ 박주영 기자, 사진/ 이운구 기자)



취재수첩

제3차 학습세례식

교회는 지난 주일(8월 17일) 저녁 찬양예배 후 1997년 제3차 학습세례식을 거행했다(사진).

이 날 학습세례식에서는 학습자 43명, 세례자 74명 유아세례자 37명, 입교자 35명, 개종자 3명 등이 나왔다.



97년도 전반기 감사를 실시합니다

- 기간 : 8월 31일까지
- 시간 : 10:00 ~ 14:00, 15:00 ~ 16:00
- 장소 : 선교관 404호
- 대상 : 당회 산하 각 위원회 및 소속 기관
- 준비물 : ① 원장 ② 증빙서류 ③ 통장 ④ 시산표 ⑤ 금전출납부
- 문의 : 감사위원회실 (교환 354)

남녀전도회, 임직원 영성훈련 성황리에 마쳐

남녀전도회 임직원 영성훈련이 지난 8월 17일 갈릴리홀에서 있었다.

전도는 오직 성령이 임함심을 통하여 시작되는 것으로 말씀에 거하여 예수님만 전하는 것이라는 내용으로 김성관 목사가 강의를 하였다. 이날 강의에는 남녀전도회 임직원이 모두 참석하여 넓은 갈릴리홀을 가득 채웠다.

권사회 수련회 열려

권사수련회가 9월 1일(월) 오전 10시부터 2일(화) 오후 3시 30분까지 갈릴리홀에서 열린다. 이 수련회는 "주의 뜻을 이해하라"(엡 5:17)는 주제하에 김성관 위임목사와 이종대 목사를 강사로 열리는데 말씀을 듣는 시간외에도 성경암송대회, 찬송가경연대회 등의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서로간에 교제하며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안수집사회 수련회도 열려

안수집사회 수련회가 8월 26일(화)부터 28일(목)까지 이대수련원에서 열린다. "세상을 향해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란 주제로 열리며 강사는 남창우 목사(장충교회 시무)이다.

수화교실 개강

에바다부는 9월 14일부터 12월 14일까지 97년도 제3차 수화교실을 개강

한다.

- 개강예배 : 9월 14일(주일) 오후 3시 교육관 109호
- 강의
- (1) 주일반(초급, 중급, 고급) 오후 3시~4시 30분
- (2) 수요일반(초급, 중급, 고급) 오후 1시~2시 30분
- 등록금 : 만원
- 접수 : 에바다부 교사실

▶ 중등3부에서는 오늘(8월 2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교육관 514호에서 작은음악회를 개최한다. 면려회가 중심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곡을 정하여 찬양의 잔치를 준비하였다. 학부모와 관심있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바라고 있다.

▶ 청년1부에서는 7월과 8월 동안 실시했던 해외단기선교사역 및 농어촌, 낙도, 오지 전도 활동에 대한 보고대회를 오는 8월 31일 오후 12시 교육관 507호에서 갖게 된다.

(글/박주영 기자, 사진/이운구 기자)

1997년도 2학기 장학금 지급

도시장학회에서는 134명에게 1997년도 제2학기 장학금 1억여원을 지급한다. 2학기에는 1학기에 이어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1학기 성적표를 제출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장학금 수혜자는 아래와 같다. 이중 사랑의 장학금 대상자는 강남구청과 서초경찰서에서 추천한 학생들이다.

• 신학원생

박노철 박인기 한승일 염현일 정성기 허 경 장혜영 이종관 최진우 송원석 김창중 오승희 허용규

• 대학생

김형일 황선희 이창주 최윤정 김영은 손호준 이성권 박재범 강영림 윤혜선 황은신 김지나 김은경 박미애 최지연 오지현 송경주 박희성 송정목 홍미정 김광석 장상원 김희석 김범진 박은영 김혜영 임성이 공경화 신혜령 김현아 남석우 이해은 김현정 기원삼 노성현 김지선 강성희 김소연 김현경 이아름

정우정 남연수 고덕인 최형원 이민욱 이영선 김수희 윤한서 김지이 이형민 도유정 김옥경 김철중 서한설 임형준 임소영 여인재 도경국 김상언 송옥성 김향미 이병주 조선애

• 고등학생

고재영 안의정 정석완 이은정 김신념 최연주 김성길 김한석 유지성 김수정 배상희 신미라 강석천 정시운 김선미 오빛나 정재욱 임지용 한보람 홍사라 진용진 장성재

• 중학생

장혜영 임현수 우성민 김유승 이진정 이우현 김인에 지은경 정국용 박광찬 변은정 김정원 강승연 하예스터 박하얀 김기현 이분희 김정식 한영아 김슬아

• 사랑의 장학금

노은영 조지홍 이승연 조용수 박상희 김연희 박혜정 김대현 최용훈 고영구 김희정

✿ 선교지에서 온 소식 / 이집트 이준교 선교사 ✿

교회 설립 20주년 맞아 갖가지 기념 행사 실시

1. 김창인 목사님 성역 60주년 기념 행사 참석

할렐루야. 김창인 원로목사님께서 성역 60주년을 맞이하시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에게 건강의 축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기회에서 저희 선교사들을 초청해 주셔서 함께 축하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감사하였습니다. 선교위원회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설악산과 통일전망대를 구경할 수 있게 된 것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 머물면서 5월 11일 주일 2부예배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고 에바다부, 새가족부 집회에도 참석하여 선교지를 소개하며 기도 부탁을 하게 된 것도 역시 감사한 일입니다. 에바다부의 형제자매들이 정상인들과 조금도 다름없이 밝고 명랑한 것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새가족부의 커리큘럼과 운영이 아주 잘 되어 있음을 보고 감사하였습니다.

서울에 머무는 동안 선교위원장님을 위시하여 전교부 지도 목사님 그리고 실행위원 여러분들로부터 너무나 큰 사랑과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부서와 많은 분들로부터 사

랑의 빛을 지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사를 드립니다.

2. 카이로 한인교회 설립 20주년

금년은 카이로 한인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77년 6월 첫 주일에 세워졌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최초로 세워진 한인교회입니다. 카이로 한인교회는 무슬림 선교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중요한 교회입니다. 비록 무슬림 나라에 있지만 주일을 성수하는 교회로써, 무슬림의 예배일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 무슬림 국가에서는 공휴일입니다. 주일은 평일과 같습니다. 그러나 카이로 한인교회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며 주일 성수를 고집해 오고 있습니다.

카이로 한인교회는 1982년 6월 23일 이집트 정부(내무성)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은 허가된 교회입니다. 이집트에서는 교회가 정부로부터 허가받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허가를 받지 못하면 무인교회가 됩니다. 무인교회는 교회 간판도 십자가도 달지 못합니다. 교회로서의 역할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설립 20주년을 맞이하면서 몇 가지 기념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 기념부흥성회 개최

5월 28일 - 30일 사흘 동안 부흥사경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강사로는 미국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 담임이신 이원상 목사님이 수고하셨습니다.

2) 기념예배 드려

6월 1일(주일)에는 교회 설립 20주년 기념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념예배에는 본교회 교우들을 비롯 다수 교민들과 이집트 현지인 목회자 이십여분을 초청하여 입주의 여지없이 교회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성대하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집트복음주의 중경 교단장 사프와트 엘 비야디 목사의 기도, 현교단장 카말 요셉 목사의 축사가 있었고 임성준 주이집트 한국 대사의 축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기 단속자 포상과 감사패 증정의 순제도 있었습니다.

3) 기념 책자 발간 및 기념품 증정

그 동안 카이로 한인교회에서 실시한 성경통신강좌 문제의 일부를 모아서(6년분) '신구약 성경 문제 제 5040'이라는 기념 책자(438페이지)를 발간하여 교우

들 가정마다 나누어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감사한 것은 금년에 현교회에서 특별기념품을 만들어 주셔서 참석하신 분들에게 선물할 수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4) 예수 사랑 큰잔치 실시

기념식을 마친 다음에는 사랑의 만찬을 베풀고 잔치를 하였습니다. 기념예배에 참석한 교우들과 교민들을 초청하여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5) 이집트 복음주의신학교 136회 졸업식 거행

5월 30일(금) 저녁 7시 1996, 97년도 졸업식(136회)이 카이로 시내 카스트도바라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금년에 졸업한 졸업생은 주간(신학사) 10명 야간 7명이며 알렉산드리아 분교 5명 수료자 4명 등 총 26명이 졸업을 하였습니다. 금년에 졸업한 수단인 신학생은 3명이었습니다.

